

	보도자료	일 시	2015. 11.16.
	성북구의회사무국 www.sbc.go.kr	부서명	홍보팀장 : 이환규 담당 : 이유나
		연락처	☎ 02)2241-5883 FAX 2241-6626

성북구의회 도서관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연구회 결과보고회

성북구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3월 의원연구단체 4개를 구성하고 4월부터 10월말까지 연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7개월 간 열심히 활동해 온 연구단체는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 연구회’의 개선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도서관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와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연구회’는 결과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며, 꾸준한 정책 대안과 연구로 한발 나아가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도서관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 목소영 의원, 총무 이미영 의원, 윤만환 의원, 정형진 의원, 송대식 의원, 김춘례 의원, 김태수 의원, 송영옥 의원, 이인순 의원)는 양 일간 석관동 주민센터와 정릉동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서 결과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구청 책 읽는 성북팀장과 관내 구립 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관계자, 새마을문고 회장, 도서관 이용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성북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각각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활동 후의 소감을 나눴다.

성북구립도서관의 경우 도서자료구입비 증액과 보존서고의 확충, 도서관 건물의 노후화 점검, 사서 인력 충원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민간(작은)도서관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전담인력 지원 및 자원활동가 육성 지원, 성북구 도서정책 속에서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공간 개선, 장서 확보 등의 기본인프라 구축, 상호대차서비스 통한 전산시스템 구축, 봉사시간이나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도서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과 더불어 결과보고를 마무리하며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도서관문화 정책의 탄탄함을 가져오는 동력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책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북의 도서정책을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면서 “연구로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책임기 좋은 성북을 만들어 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연구회’(대표 권영애 의원) 는 2014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중 독일에서 접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성북구에 접목시켜 반영해보려는 취지에서 구성되어 활동기간을 마치고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바람직한 국외연수 및 숲체험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애 대표의원을 비롯한 간사 안향자 의원, 목소영 의원, 이광남 의원, 박학동 의원, 오중균 의원이 참여해 연구단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패널로 이영숙 도봉구의회 의원,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 이미라 어린이집 원장, 숲 체험 전문가 박성숙 씨가 참석해 토론과 질의 답변 등을 실시했다.

목소영 의원은 2014년 국외연수 보고를 통해 “2014년의 국외연수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책임위원회제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배우고 토론하는 국외연수로 변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는 연수였다” 며 “사회문화적·역사적 환경이 다른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접목할 순 없지만 오랜 역사와 원칙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가치들과 아이디어가 의원들의 성북구에 대한 애정과 결합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학동 의원은 ‘바람직한 국외연수 제도 개선’ 을 주제로 공무국외연수의 변화를 위한 노

력의 시작인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 제정 등 주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책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하고 연수기획이 포함된 연수전문기관에 기획 또는 대행을 의뢰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기능을 보강해 해외연수, 현지 통역지원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방문기관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광남 의원은 ‘숲체험장 운영실태 및 방향 제안’을 주제로 관내 숲체험장 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 등을 설명하며 “성북구는 우수한 숲 자원을 갖추고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 다양한 숲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어 이런 이점을 극대화시킬 다각적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방안으로는 장기 프로그램의 확대,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단체 선정 방식 개선, 이동 차량 및 숲해설가 지원방안 등의 제도적 지원, 숲 체험 보수교육 실행,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체 구성, 숲 테마학교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오중균 의원은 ‘숲체험장 시설개선 제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독일 숲 유치원 조성 개념을 성북구 공간에 반영해 인위적 시설을 지양하여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숲체험장 조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향자 의원은 현대 아이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숲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북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숲체험장 시설 확충 및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산림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 숲 체험원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2017년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 또한 녹색복지 개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숲체험 확대 조성계획을 발표한 만큼 성북구의 적극적인 행보로 많은 아이들에게 숲체험장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전통시장 방문

- 관내 전통시장 시설 및 현황 점검 -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일영)는 11월10일 관내 전통시장 4곳(돈암·정릉·길음·장위)을 방문해 시설 및 현황을 점검했다.

이 중 전통시장 3곳(돈암·정릉·길음)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위전통시장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현장에서 위원들은 전통시장별 사업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지역 상인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현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삼선녀 축제와 연계해 전통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돈암시장, 서울형 신시장 육성사업으로 주변자원과 창조인력을 활용해 상인, 주민, 예술가들이 함께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릉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상

인 공동체 운영과 특화상품 생산 및 유통, 주말 특화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길음시장은 각기 다른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장위전통시장은 공동 주차장 건립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을 기대하게 되었다.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은 “고객과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부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소속 위원들은 “사업예산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들 모두도 관심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